

1. プログラム概要

【目的】「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JENESYS)」の一環として、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にて選抜された大学生・社会人等を招へいし、テーマ「日韓交流おまつり in Tokyo」参加及びポストコロナの地域再生事例」の下、「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のブース運営を通じて、様々な世代の日本人との交流及び意見交換を行うと共に、各種視察、学校訪問、日本の同世代との交流、ホームステイ、テーマに沿った講義聴講等を通じて、日本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ことで、今後の日韓間の相互理解と信頼関係増進の基盤強化に寄与することを主目的とする。

【参加者】 プレプログラム（オンラインによる事前学習） 韓国の大学生・社会人等 9名
招へいプログラム 韓国の大学生・社会人等 9名

【訪問地】 プレプログラム 東京都 9名
招へいプログラム 東京都、北海道 9名

【日程】

■ プレプログラム（オンライン事前学習事）:

9月21日（木） プログラム説明、事前学習事項伝達、参加者による対外発信

■ 招へいプログラム:

9月29日（金） 羽田国際空港より入国、オリエンテーション

【表敬】 外務省、【講義聴講】「最近の日韓関係」

9月30日（土） Aグループ:【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ブース運営参加を通じて
日本の一般市民との交流

Bグループ:「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取材

【視察】 李秀賢氏追悼・顕彰碑含む新大久保フィールドワーク

10月1日（日） Aグループ:【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ブース運営参加を通じて
日本の一般市民との交流

Bグループ:「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取材

【視察】 李秀賢氏追悼・顕彰碑含む新大久保フィールドワーク

10月2日（月） 北海道函館市へ移動

【学校訪問及び同世代交流】 北海道教育大学 函館校:「日韓両国の少子高齢化と労働力不足の現状と取り組み」をテーマに意見交換、七飯町へ移動

【交流】 ホームステイ

10月3日（火） 厚沢部町へ移動、

【視察】ポストコロナの地域活性化事例：「世界一のこども園をつくる」厚沢部町認定こども園への保育園留学、【講義聴講】保育園留学の取組と過疎地域再生・活性化について、【交流】ホームステイ

10月4日（水） ホームステイ解散式、札幌市へ移動、

【視察】野外博物館「北海道開拓の村」、成果報告会

10月5日（木） 新千歳空港より出国

2. 記録写真



2023年9月29日【表敬・講義聴講】
「最近の日韓関係」（外務省）



2023年9月30日【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で「韓国の若者と語ろう」ブ
ース運営（駒沢オリンピック公園）



2023年10月1日【交流】「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で各種取材活動（駒沢オリンピ
ック公園）



2023年10月2日【学校訪問及び同世代交流】
「日韓両国の少子高齢化と労働力不足の現状と
取り組み」をテーマに意見交換（北海道教育大学
函館校）



2023年10月3日【視察】ポストコロナの地域活性化事例：保育園留学（厚沢部町認定こども園「はぜる」）



2023年10月3日【講義聴講】保育園留学の取組と過疎地域再生・活性化について（厚沢部町役場）



2023年10月4日【交流】ホームステイを終えて（ホストファミリーの皆さんと：七飯町）



2023年10月4日【成果報告会】（札幌市内）

3. 参加者の感想（抜粋）

◆ 韓国 大学生

日韓両国は、過去から現在まで様々な葛藤がある中でも、人的交流は絶え間なく続けられ、お互いに影響を与え合ってきたが、今回の様々な人的交流プログラムを通じて、両国は未来に向けてもそうあるべきであり、必要不可欠なパートナーとして重要な関係に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できた。「日韓交流おまつり」での一般市民との会話やホームステイ、大学での意見交換等を通じて、日韓は本当に似ている部分も多く、解決すべき社会的課題も共通しているものも多く、異なる部分があってもお互い尊重し合い、益々協力関係を築いていってほしいし、私たちの世代でも実践していきたい。

◆ 韓国 大学生

メディアを通じてではない、リアルな日本を実際に体験できたばかりでなく、そう簡単に接することのできない数々の貴重な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新たな日本に関する知識も得ることができた。特に、保育園留学の政策が、直接的にも間接的にも、少子高齢化問題をはじめとする地域社会の諸問題解決へとつながっている部分は非常に興味深かった。

◆ 韓国 大学院生

「日韓交流おまつり」ではブース運営と取材を通じて、北海道での大学訪問と意見交換にホームステイ等、日韓の人的交流の機会が多く、どれも非常に印象に残っていて、どれも大変良かった。今回の訪日を通じて老若男女様々な日本の一般市民の方々と、多岐にわたる話題で話し合うことができ、普段はなかなかできないような質問も存分にでき、新たな友人もでき、日本への理解が更に深まった。これで満足することなく、今後は日韓の若者同士で協力し合いながら何かを生み出していくような活動をしていきたい。

◆ 韓国 社会人

韓国でもなかなか機会のない保育園の視察や、初めて聞く地方都市の活性化政策等を学ぶことができ、大変貴重な機会をいただいた。また、ホームステイ等を通じて、韓国にはない文化を学ぶこともでき、逆に韓国の文化を伝えることもでき、良い交流体験になった。

4. 受入れ側の感想（抜粋）

◆ JKAF（大学生訪韓団同窓組織：「日韓交流おまつり 2023 in Tokyo」で共にブース運営）

訪日団の皆さんと過ごし、日本と韓国の魅力を再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韓の就職活動の違いや、両国のホットトピックについてお話しする機会もあり、お互いの国の違いに驚きながら、新しい発見のある時間となりました。おまつりのブース運営「韓国人と語ろう」コーナーでは両国への質問が飛び交い、お客様も運営の私たちも有意義な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 北海道教育大学 函館校

この度は韓国の若者の皆さんにお越し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日韓は共に共通の社会的課題を抱えており、今回は少子高齢化とそれに伴う労働者不足等について日韓の若者同士が発表し、意見交換しながら学び合うことができ、双方の学生にとっては貴重な時間になったと思います。また是非このような機会があればと思います。

◆ 北海道大沼国際交流協会

北海道教育大学でのミニシンポジウム、厚沢部町認定こども園「はぜる」への視察、両方共に有意義な内容になったと思います。特に「はぜる」では主任保育教諭が「皆さんへ教えることが楽しい、いっぱい聞いて貰いたい！」と発言してしまうほど韓国の皆様からのご質問がこれまで視察されて来られた方々と比較し、大変答えがいのある質問だったと感じました。

◆ ホームステイ受入れ家庭

はぜる

요즘 육아 세대가 바뀌면서 육아나 훈육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찰로 올바른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최적의 환경 조성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무작정 '안돼'가 아닌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하재루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원 시찰이 단순히 교육 환경과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이전에 훗카이도 대학에서 의견교환 했던 저출산고령화와도 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 출생률 증가,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상승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미래가 보여서 이번 시찰이 정말 재미있었다

아무튼 하재루 같은 어린이원의 아이 중심 교육 방식이 한국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일본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많이 봐서 너무 행복했다

글쓰기 어려워서 두서없이 적긴 했지만.. 감명깊었던 시간이었다 🥰

2023年10月3日 (Instagram、抜粋)
最近は世代も変わり育児方法の問題点も認識されているが、今回の視察を通じて正しい育児の方法のみならず最適な環境を作ることも同時に重要であると感じた。

無条件「ダメ」ではなく、みんなで相談して決定することを学ぶ「はぜる」の子供たち。そして、このこども園の存在が、単に教育環境や地域発展のみならず、少子高齢化とも間接的なつながりがあると感じた。

「関係人口」増加のために始まった事業が、地域社会発展、出生率増加、教育環境改善につながり、結局は生活の質上昇にまでつながるような未来を見ることができ、今回の視察は本当に面白かった。「はぜる」のような子供中心の教育方法が韓国にも導入されることを願いたい。

「人口減 日韓共通の課題」

訪日団 函教大生と意見交換



人口減少対策について意見交換をする韓国青年訪日団のメンバーと、道教大函館校の学生

「はぜる」などを視察。参加者は「人口減少は日韓共通の課題。新たな視点で考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振り返っていた。

視察は外務省が行う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の一環。今回は在韓日本大使館が選抜した大学生ら若者9人が来日し、七飯町内でホームステイをしながら地方の人口減少をテーマに各地で学んだ。

道教大函館校では、外国人労働者問題を研究している孔麗教授が講演。また、同教授の「地域プロジェクト」を受講する同校の学生が外国人労働者への支援活動や道内の移住・定住の取り組みの事例を、訪日団のメンバーが韓国の少子高齢化の対応策をそれぞれ発表し、意見交換した。

厚沢部町では同町の担当者が、首都圏の子育て世帯が移住体験をしながら子どもを「はぜる」に通わせる制度を説明。2023年度には150組の家庭が制度を利用し、地域への経済効果もあつたと紹介した。高麗大4年のキム・ジウさん(24)は「住民票を移さず事実上移住する関係人口という概念に、過疎地の未来を見た」と驚いた。(石川要和)

実上移住する関係人口という概念に、過疎地の未来を見た」と驚いた。(石川要和)

「七飯」町は、町民の健康増進とスポーツ振興を目的に、サン・スポーツクラブ(函館市石川町)と包括連携協定を締結した。同社の及能副代表らが町役場を訪れ、9月26日に締結式を行った。

同社は道南の自治体と協定を結ぶのは初。今後介護予防教室の開催や運動教室への講師派遣で協力を検討している。協定書に調印した杉原大町長は「子どもか

6. 報告会での訪日成果とアクション・プラン発表

(訪問地：東京都、北海道)

일본문화원리포트_9기_A팀_역자단, 김지우, 차준호, 조성훈

방일연수 소감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은 실존 관계를 맺어온 한일 양국이다. 다양한 갈등 상황속에서도 인적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측면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8개월만의 강의에서 다시금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에 감사한다.



한일축재한마당 IN TOKYO는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을 가져다주었다.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힘을 실감했다. 현재와 미래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곧 역사이며, 이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



사람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사람에는 죄생이, 존경이, 감사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응당 적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사랑으로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프로그램 후기 작성 임포드 · 비즈뉴스 일본어 주 1회 공부 · 한일축재한마당 in Tokyo 소개지 영상 유튜브 업로드, 한일축재한마당 in Seoul 홍보 	10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듣기 수업 수강 · 일본어 쓰기 실기 · 현재 신오쿠보의 모습, 한국인 사정내외의 문화교류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포스트링 · 이후학 현황에 대해 기사 포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일본 뉴스 스터디 개설 · 2월 일본 여행일정을 확정 시킨다 · 지속적인 한일 교류를 위한 콘서트 임포드 및 한일문 화교단 협동 공연 	12월	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일본 뉴스 스터디 · 소규모 여행지 · 일본어 쓰기 실기 · 온라인/오프라인 제도 관련 논문 작성

방일연수 소감

일본문화원리포트_9기_A_정다인, 전소현, 이혁진, 김태한

정다인

한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교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일청년들의 교류에 참가하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협력하여 축제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축제를 함께하는 아이, 어른, 노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약 일주일의 시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혁진

미디어를 통한 단순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한 교류를 통해 실제 일본의 모습을 생생하게 배웠다. 다양한 세대에게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반대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모습을 통해 공감하며 유대감을 강화했다. 현재 한일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일본문화원 김포터룸에 노력하며 나아가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전소현

한일축재한마당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교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껴졌지만 신오쿠보 속 작은 한국을 만났을 때는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서로 통화할 듯 보였다. 여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환대와 배려에서는 일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길 바란다.

김태한

일일대수의 한국과 일본,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분명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말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일축재한마당에서의 일일교류는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홈페이지에서는 가족분들에게 일본의 특별한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다.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축재한마당, 신오쿠보 취재 영상 제작 및 게시 - 홈페이지 한일축재한마당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교류 - 일본문화원 캐릭터 구상 	<p style="text-align: center;">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서 배운 일본문화(紙鶴, 民謡) 카드뉴스 만들기 - 일본 제방문 및 일본 문화 탐방 - 방일단 체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및 블로그 게시물 투고
액션플랜	
<p style="text-align: center;">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LPT N2 및 jpt 850이상 취득 도전 - 일본 취재 영상을 활용한 숏츠 제작(지속적 홍보) - 신오쿠보 취재 영상물을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 일본 문화원 캐릭터를 이용한 일본 문화 인스타그램 게시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JLPT N1내정 및 N2 취득 JPT 750점 취득 일본어 원서 읽으며 공부 일본 영화 자막 읽어 읽기

【訪日中の学び】

数多くの日本の一般市民と交流し、対話を重ねることにより、相互理解及び相手を尊重し合う姿勢の大切さに気付き、改めて日韓関係の重要さを悟ることができた。

【テーマに関する訪日中の発表】

多くの交流で学んだ日本人のこと、各種視察で学んだ少子高齢化や地方活性化等について、学んだだけで終わるのでなく、帰国後に広く伝え、周りの人々と共有することにより、未来の日韓関係に貢献していきたい。

【アクション・プラン】

①3か月以内に実施

- 今回の訪日団の内容をまとめた動画や記事を作成し、各種 SNS やブログ等に広く公開
- 様々な日本語学習実践（通翻訳・JLPT 等）
- 週 1 回日本ニューススタディの集まり開始

②長期目標

- 日韓交流の現状を随時調査して広く共有
- 厚沢部町の「保育員留学」政策について詳細な調査及び論文作成

【訪日中の学び】

様々な交流や視察を通じて、今現在の日韓間の距離はあまり感じず、日本人の情も感じ、むしろ同化している部分もあると思った。日韓間はさらに肯定的な発展をしていき、より親密になれると感じた。

【テーマに関する訪日中の発表】

「日韓交流おまつり」ブース運営を日本の若者と協力し合いながら達成できたことが印象深かった。私たちの日韓交流はようやく始まったばかり。日韓関係発展のために努めていきたい。

【アクション・プラン】

①3か月以内に実施

- 今回の訪日団の内容をまとめた動画や記事を作成し、各種 SNS やブログ等に広く公開
- 今回出会った多くの日本人との交流を継続
- JLPT の試験に挑戦する。

②長期目標

日本語の能力を高め、日本語原書で日本に関する様々なことを学んだり、字幕なしで日本語の映画等も見られるようにしたい

実施団体名：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